

오 전 예 배	오 전 11:00	온라인 예배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7장		
교 독 문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찬 양 과 경 배	323장 (통일찬송가 355장)		
기 도	조 윤 익 장로		
특 송	최영석, 최성규 [주 안에 우린 하나]		
동 영 상	42주년 기념		
말 씬 봉 독	고린도후서 10장 12 ~ 18절		
설 교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의 나라 세우소서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복 (시2:1-12)		

교회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p>[3월 한달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1시 비대면으로 드리고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대면/금요일기도회는 비대면으로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p>-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p>
2. 3 월 한 달 특 별 기 도	<p>매일 오후 8시 합심 개인기도</p> <p>코로나 종식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모두 함께 기도해주세요.</p>
3. 창 립 예 배 및 안 수, 임 직 식	<p>3월 20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42주년 기념 주일예배로 드립니다.</p> <p>오후 3시에는 목사, 장로 안수 및 권사 임직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p> <p>-42주년 근속자 명단-</p> <p>20년 손진강, 손가은</p> <p>30년 이하은, 유영은, 김예찬</p> <p>40년 김명옥, 이수경, 조계승, 최영석</p> <p>*근속선물은 사무실에서 개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p>
4. 개인경건훈련안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3차) (범위: 사무엘상 8장 ~ 사무엘하 24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5. 교 우 동 정	<p>강병국(배미자) 집사 모친 소천 (3월 18일 금)</p> <p>유가족을 위해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발인 : 3월 22일)</p>

한주간의 기도제목	<p>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p> <p>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한주가 되기를</p>
------------------	---

찬송 :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288장(통 204)

본문 :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곧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가장 소중한 말을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택함 받은 하나된 성도임을 말하며,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남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통해 비슷한 인사말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인사말들이 모두 감동이 되는 이유는, 이 말들이 지면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바울의 진심을 담은 인사임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채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은 성도의 삶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적은 편지의 마침표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만나게 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순간에라도 ‘변함 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아빠가 아기에게 ‘너무너무 보고싶었어’라고 말하자, 아기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기가 보고 싶어서 아빠 고장났어?’ 문법은 틀리지만, 참 예쁜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이라도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아기가 아빠의 품으로 달려오는 것처럼,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변함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말할 때 바울을 아는 모든 이들은 바울이 당한 고난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서신부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적은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당한 고난도 떠올릴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고통들을 에베소의 사람들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언급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 정말로 생생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세상 잘 살수있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은혜, 곧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제 목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고후10:12-18)

서 론 교회 창립 42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교회)

- (1)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지혜가 없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어야 함(12,18절)
- (2)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간 것을 자랑함(13,14절)
- (3)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자기가 수고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음(15,16절)
- (4)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본 론

2. 교훈

- (1) 어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가?
- (2) 나는 무엇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가?
- (3)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교회)가 되기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 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윤익 장로	이태수 장로

매일 Q.T.	연약해 실패하는 일상, 회개하고 일어서는 제자	날짜 : 3월 21일
---------	------------------------------	-------------

찬양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본문	누가복음 22:54-62
말씀요약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 들어가 뜰에 불을 피운 사람들 가운데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며 그 도당이라고 하자, 그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주님의 말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목상질문 1	베드로의 부인 22:54-60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게는 주님께 대한 신의를 내 안위보다 우선시하는 믿음이 있나요?
목상질문 2	베드로의 통곡 22:61-62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순간, 베드로가 기억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나를 회개하게 하고 회복시킨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누가복음 22장 61절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아무 말이 없으시지만, 그분 눈빛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며, 이전에 그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권면까지 담은 사랑의 눈빛입니다. 베드로는 작은 위기에도 예수님을 쉽게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달랠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던 주님 눈에 제 시선을 고정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경솔한 장담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아는 즐거움이 어느 날 제 생명에 위협을 가져온다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마치는 그날까지 저를 붙잡아 주소서.

개인성경공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찬양과 기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새 384, G)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고려 시대에는 사냥할 때 활과 창은 물론이고, 개나 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매로 사냥하는 것을 매사냥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웅만한 벼슬아치들은 사냥매 한 마리쯤은 갖고 있으면서, 잘 훈련된 몰이꾼이 쾅이나 새를 몰아가면 매가 쫓아가 낚아채는 방식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매사냥이 유행하다 보니 사냥매도 많아지고, 매가 뒤바뀌거나, 누군가 매를 훔쳐 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매의 꼬지에 주인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이를 시치미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종종 매의 시치미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꼬리에 달린 시치미가 어색하고 귀찮아서 매가 꼬리를 돌이나 나무에 비벼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가 남의 매를 훔쳐 시치미를 떼고 자신의 것인 듯 태연하게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소위 ‘시치미를 떼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시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름표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귀찮거나 숨기고 싶어서 우리의 시치미를 숨기기도 합니다. 혹은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시치미를 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그분의 소유 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 나누기	누가복음 22:54~62
목상포인트	항상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제자는 열매를 맺습니다(요 15:4).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시자 그분을 부인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은 우리를 밀 깨부르듯 하는 사탄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본질상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닭이 울고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그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수많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 말씀을 늘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54~55절)
적용하기	예수님을 더 가까이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후회 대신 회개로 이끄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쁨을 부어 주소서.
기도	

매일 Q.T.	구원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	날짜 : 3월 25일
---------	---------------------	-------------

찬양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본문	누가복음 23:26-32
말씀요약	예수님을 끌고 가던 이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그들과 자녀를 위해 올라 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목상질문 1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 23:26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잠시나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주님을 위해 내가 기꺼이 질 수 있는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백성을 염려하시는 예수님 23:27-32 예수님을 위해 가슴 치며 우는 여자의 무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장차 어떤 심판을 당할까요?
한절목상	누가복음 23장 26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떨결에 지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몬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훗날 시몬과 그의 온 집은 예수님을 믿어 로마 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 그분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가시관을 쓰시고 피로 범벅이 된 눈으로 예루살렘 딸들의 눈물을 살피신 주님! 택하신 이들이 당할 고난을 아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 앞에 제 마음이 녹습니다. 원수가 저를 찌르며 무너뜨리려 해도, 주님의 자녀답게 십자가 사랑을 의지해 너끈히 승리하게 하소서.

매일 Q.T.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서 무력함으로 이루는 사명	날짜 : 3월 22일
---------	------------------------------	-------------

찬양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본문	누가복음 22:63-71
말씀요약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롱하고 때립니다. 날이 새니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여 그리스도인지 묻습니다. 답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임을 아신 예수님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물음에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십니다.
목상질문 1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22:63-65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를 참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예수님을 심문하는 자들 22:66-71 예수님은 그분의 신분을 어떠한 말씀으로 드러내셨나요?(69절) 온 우주의 통치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자신을 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누가복음 22장 70절 “내가 그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분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낼 때 사용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 유대교 지도자들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 다. 무지보다 무서운 것이 아집입니다. 자기 고집에 머무르면 성장이 멈추고, 주변을 찌게 만듭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깨뜨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하나님 아들이신 줄 알 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어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죄인인 저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이 구원자심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매일 Q.T.	무죄를 아는 권력자들, 침묵하시는 예수님	날짜 : 3월 23일
---------	---------------------------	-------------

찬양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본문	누가복음 23:1-12	
말씀요약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죄목을 강하게 주장하자,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헤롯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예수님을 회롱하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전에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 친구가 됩니다.	
목상질문 1	빌라도의 무죄 선언 23:1-5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나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조롱과 정죄를 감내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헤롯의 무죄 선언 23:6-12 헤롯의 질문에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갓은 조롱에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 내가 더 인내하며 침묵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누가복음 23장 12절 누가는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를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빌라도가 반란 진압을 명목으로 성전에 군대를 보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예수님 처형 문제 앞에서 한마음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연합하는 것을 심심찮게 봅니다. 성도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원수끼리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친구가 되는 것이 악의 속성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을 찾으려 들수록 도리어 예수님의 무죄함만 증명될 뿐임을 봅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을 거슬러 공격해 오는 원수를 죄성으로 응수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매일 Q.T.	바른 분별을 저버린 비겁한 판결자	날짜 : 3월 24일
---------	-----------------------	-------------

찬양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본문	누가복음 23:13-25	
말씀요약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므로 매질 후 풀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리는 민란과 살인으로 투옥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 지릅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목상질문 1	빌라도의 바른 분별 23:13-17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 주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양심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 23:18-25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겨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유익을 위해 진실을 거부한 채 현실과 타협하려 한 일은 없나요?	
한절목상	누가복음 23장 16절 빌라도가 죽일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신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노라.”라고 한 것은 명예수치 문화를 고려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기소당하면 무죄일지라도 기소자의 체면을 고려해서 법정적 경고 의미로 그를 채찍질하고 풀어 주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명백한 무죄임에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바르게 분별해도 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제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을 주님이 삶의 예배로 기쁘게 받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매사에 신중하게 분별하되, 제게 손해가 되더라도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편을 택하게 하소서.	